

뉴질랜드의 생활

세상의 반대편에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얼굴이나 머리색도 다르고 그다지 친숙하지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곳에서 살기로 결정할 수 있나요? 가족이나 이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친구들을 떠나서? 자, 여러분이라면 그럴 수 있으세요? 뉴질랜드에서의 살기로 한 선택은 아마도 제 생애에 결정해야할 가장 큰 모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만 했어요, 소위 말하는 뉴질랜드의 Kiwi life 라는 것이죠. 물론 말하기, 듣기, 읽기, 그리고 쓰기까지 새로운 언어를 사용해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야만 했어요!

어떻게 하면 새로운 친구를 사귀면서 영어 실력을 키울 수 있을까? 제 첫 번째 답은 'S'자로 시작하는 말입니다-Sport. 운동을 하면서 팀원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어요. 제가 제일 먼저 선택한 종목은 이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자 선수들로만 이루어진 Net Ball 이라는 운동입니다. 불행히도 저는 Year8 학생들과 한 팀이 되어 내 친구들과 함께 할 수는 없었지만 덕분에 Year8 친구들을 많이 사귄 수 있었어요.

두 번째 답은 '인심이 후해야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맛있는 점심을 싸왔을 때는. 아마도 친구들은 나누어 먹는 것을 정말 반가워 할 거예요. 제 경우에는, 친구들과 나눠 먹기 위해서 항상 2 인분의 점심을 준비해 왔어요. 저의 경우를 보면, "맛있는"음식을 실컷 나눠 먹으면서 수다를 떠는 거죠, 오늘 일어난 일이나, 멋진 남학생 얘거나, 누가 누구한테 관심이 있는지 등등. 아시잖아요, 여학생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 지..

이런 수다가 제게는 매우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얘기를 나누는 사이에, 전부를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듣거나 말하기 시간의 연장선 같은 거죠. 이걸 동시에 영어로 말하고 듣는 실력도 친구들이랑 수다를 떠는 사이에 좋아진 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심을 후하게 쓰면 모든 것을 나눌 수가 있어요, 연필깎이에서부터 간식까지. 저는 사탕이나 팝콘 등을 가지고 왔는데요, 만일 엄청 잘 먹는 친구가 있다면 모를까, 우리는 공평하게 나눠먹게 되지요. 이렇게 음식을 나눠 먹을 때 마다, 저는 배고프지도 화가 나지도 않았어요. 사실 만일 여러분의 음식을 친구들이 모두 먹는 것을 보고 있거니와 하다면 그리 즐겁지 않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전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친구들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했으니까요.

저는 특별히 이런 일들을 함께 해 준 제 친구들이 너무 고마워요. 제 생애의 가장 큰 도전이었던 이번의 모험은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뉴질랜드의 새로운 생활을 적응할 수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3 분간의 긴 얘기를 영어로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만일 꿈이 있다면,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박준형 (R12)